

## 청년 포교 '적신포'...한국불교 기동 흔들리나

### 청년 포교, 왜 중요한가

"젊은 세대가 살기 힘든 사회다. 취업 때문에 동아리는 사치라고 할 정도다. 친구는 도반이 아닌 경쟁세대다. 행복해 지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싶어 한다. 또 법우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 20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포교가 사람을 모으는 포교였다면, 앞으로는 청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이해한 포교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 2월 24일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이뤄진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의 브리핑 중 일부다.

실제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은 평균 704만 원이며 152만 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졸업할 때 2000만 원 정도를 빚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사회의 대다수의 20대는 사회에 진출하면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자금을 모으는 것은 연감생심이다.

한국 평균 결혼비용은 1억 2000만원. 20대 평균 임금을 반영하면 10년이 돼야 지원없이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인다. 26세에 취업한다면 36세에 결혼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3~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청년들이 지친 삶의 의지저조 종교에 귀의할만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 종교 지형에서 2030세대의 이탈은 가파른 상승세이며, 한국 3대 종교 중 불교의 청년 감소세는 제일 두드러진다.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월 12일 내놓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는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침체 일로에 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는 1984년 44%, 1989년 49%, 1997년 47%, 2004년 54%로 증가 추세였지만 2014년에는 50%로 떨어졌다. 반면, 비종교인 비율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20~30대의 종교 이탈이 심각하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는 20대 비율이 45%였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31%로 14% 감소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10년 전 49%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8%로 11% 줄었다.

종교인구 감소 부분에서 불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젊은 세대의 이탈이 3대 종교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다. 그러다보니 2014년 조사에서는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미 불교 신도는 연령 양극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7월 해남 미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청년 출가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스님들과 포행을 하고 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 정원에 27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20대 역시 '대안적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입증했다. 청년 포교의 시작은 그들의 고민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연령별 종교인 분포 1984~2014 (%)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불교인	10	10	15	10	17	15	21	11	28	21	27	21	29	30	35	32	35
개신교인	20	19	23	18	19	22	23	20	14	22	21	20	13	18	19	23	24
천주교인	5	6	6	3	7	8	6	7	5	8	9	9	6	7	6	5	8
비종교인	64	64	55	69	55	53	51	62	51	47	43	49	47	44	38	40	32

\*109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60세 이상 별도 구분 출처=한국갤럽

는 125곳 정도다. 전국적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은 23개 지역 150여 개 지회로 구성돼 있지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불교동아리를 모집하는데 지난해에는 1명이, 올해에는 15명이 왔다"면서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문도 동아리도 외면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 "대학가 현실에서는 취업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불교계에서 만이라도 종무원을 비롯해 불교계 내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불교계 기업과 청년 불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군불자는 매년 10만 명의 새로운 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불자수는 8만 명 정도이다. 그렇지만 군 환경이 좋아지고 종교활동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군불교환경이 변하면서 군법회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수계를 받았어도 대학이나 사회로 신행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역 장병 연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제시된 과제다. 장성화 조계종 균종교구 기획실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포교정책연찬회에서 "군포교가 단순하

씨를 뿌리는 작업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면서 "전역 불자 장병 명단을 종단에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전역 장병 명단을 종단에 연계했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사장됐다"면서 "종단은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 분사, 포교당, 청년회, 대불련 등과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민하는 젊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때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장려를 위해 2012년 개설한 '청년 출가학교'는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자리로 20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시흥 첫해 30~40명 정원에 270명이 몰렸다. 서울대, KAIST 등 재원들도 상당 수였다. 당시 이들 대다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근원적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대불련 회장은 "취업과 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불교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무엇보다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 불자가 아닌 젊은이들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종단에서 청년 불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찰들이 다리 역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회도 중요하다. 당장 <반야심경>을 주제로 법회를 한다면 그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 추구에 관심이 많은 현대에 대한 맞춤형 포교·명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지금 서양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명상에 바탕으로 둔 리더십 개발이 큰 유행의 물결을 타고 있다. 실제 구글, 애플, 야후, 나이키, 실리콘 벨리의 우수한 기업체들, 도이체 방크 등 내로라하는 기업체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명상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취업과 관련한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길러준다면 그것은 바로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나이가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명상센터 운영 또한 필요하다. 사찰에 젊은이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명상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종교 전반 걸쳐 청년 감소 추세

### 불교, 기성 종교 중 가장 하락

### 신도 노령화로 연령 양극화 현상

### 청년 고민에 불교 부응 했었나

### 연령별 욕구 맞춤형 포교 필요

### 젊은이를 위한 불교 공간 만들자

### 관심도 열정도 부족한 청년포교

한국갤럽의 설문결과를 전부 일반화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감된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어린이·청소년 포교 저하로 인한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2030세대를 위한 포교 환경은 어떨까. 현재 청년포교 체계는 20대에 집중돼 있다. 대학생과 군인이라는 결혼한 포교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포교만큼이나 열약하다.

포교원이 2월 대중공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찰 258곳 중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37곳에 불과하고, 청소년법회는 76곳, 대학생회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영축총림 통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유 나 천진 보탑  
울 주 중산 해남  
강 주 영은 현진  
울 원 장 우설 덕문  
박 물 관 장 인산 지준

방 장 원 명 지 중  
수 좌 중 봉 성 파  
주 지 원 산 도 명  
부주지 지 목 향 조

도 감 용담 현기  
기획국장 영랑  
재무국장 문수  
포교국장 선본  
원 주 도훈

총무국장 동진  
교무국장 마벽  
사회국장 보원  
호법국장 현중  
농 감 종백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